



추위 쫓는 모닥불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온 4일 오전 광주 남광주시장에서 한 상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쬔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기상청은 주말 인 6월 아침까지 한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내년 13개 사업·국비 1천597억 지원 확정

광주 AI중심도시 구축 본격 시동

차세대 국산 NPU 기반 컴퓨팅센터 첫발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선도사업 박차

안도걸 “정부 패키지 정책으로 지원 절실”

광주가 AI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광주 AI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2026년도 핵심 사업 13개와 국비 1천597억원 지원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NPU컴퓨팅센터 타당성 연구비 반영(6억원) 차세대 국산 NPU를 기반으로 한 컴퓨팅센터 구축이 첫발을 내디뎠다.

NPU 컴퓨팅센터는 향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추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핵심 인프라다. 광주가 NPU 칩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확산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된 셈이다.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선도사업비(617억원) 총사업비 1조5천억원의 ‘광주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확정됐고 내년 착수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도시 관제시스템과 교통·도로·센서 통합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과 함께 AI 스마트모빌리티 차량 200대를 투입해 도시 단위 실증이 이뤄지며, 사업 비용으로 617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AI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비 확대(191억원) 현재 광주 AI데이터센터의 GPU 용량과 스토리지·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반을 대폭 확충해 컴퓨팅 성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막대한 컴퓨팅파워 인프라를 기반으로 H100 GPU 88장을 전량 임대해 지역 AI 기업들에게 저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해 내년도 예산에 191억원을 반영했다.

◇국가 AGI연구소 설립 예산도 반영(200억원) 내년 예산에 산·학·정 공동 참여형 연구소(SPC) 설립 예산(200억원) 내에 대안 반영됐다.

연구소 입지 지역은 공모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된 데 이어 AI 생태계가 가장 잘 조성됐고 인프라가 집적된 광주지역 내 유치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AX실증밸리 조성 1차년도 예산증액(296억원) 총사업비 6천억원 규모의 AI 2단계 클러스터 조성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차년도 사업비를 최대한 증액한 것이다.

사업 기간을 당초 4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도 57억원 증액해 296억원으로 늘렸다.

◇AI 인재양성(AI사관학교 105억원 + AI영재학교 3억원)

광주 AI영재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 31억원이 반영됐고 건축비 부담비율은 국비 70%·시비 30%씩 부담하게 된다. 또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광주 AI사관학교 사업에 연구개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고급 마에스트로 과정 신설(전액 국비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AI응용·실증사업 종류·규모 확대(59억원)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센서·인지부품을 테스트하고 시험·인증하는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 성능 시험센터’ 신설 예산(설계비 24억원)과 AI 특화병원 2개를 지정해 의료서비스 고도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AI 의료생태계 구축’ 예산 30억원이 반영되면서 산업·도시·의료 전 분야에서 AI 실증이 동시에 확장되는 종합적 추진 구조가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 광주를 전면 AI실증도시로 전환하는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AI실증도시’ 연구 용역비 5억원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이번에 반영된 AI인프라 사업과 예산은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전환하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알토란 같은 예산”이라며 “광주 AI 중심도시를 위해서는 AI 산업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세제·규제 완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社 告

전남 동부권 리더를 모십니다

‘제2기 광양만권 리더스 아카데미’...CEO·각 단체 관리자 등 대상

인적네트워크·다양한 원우회 활동

광양,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에서 활동하는 지역리더를 모십니다.

광주매일신문이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제2기 광양만권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함께 할 원우를 모집합니다.

광양만권 리더스 아카데미는 기업체 CEO와 임직원, 각 단체의 관리자 및 열정적인 지식 탐구를 지향하는 사업가와 청년 등이 참여하는 학습·교류의 장입니다.

문달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 등 각 분야 최고 강사진의 열정적인 강의를 선보입니다.

또 원우회차원에서 골프와 트레킹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광주매일신문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2기 광양만권 리더스 아카데미 과정에서 고품격 강의와 소중한 만남을 통해 재미와 만족을 극대화하십시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인원: 00명
- 교육기간: 2026년 3월 개강 - 10월 종강(연 12회 강자)
- 지원자격: 기업 경영자·관리자, 지방자치단체장·의원,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 7-9시(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광양락호텔
- 모집기간: 2026년 3월까지
- 문의: 의·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4)

제주항공 참사 조사 항철위 ‘독립기구’ 청신호

개정안 국토위 소위원회 통과

국토부→국무총리실 소속 골자

유가족 “독립적 진상규명 시작”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로부터 ‘셀프 조사’ 비판을 받았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기구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인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 조사 기구로 옮기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개정안은 공포 후 한 달 뒤 시행되도록 규정됐다. 개정안에 의해 시행 즉시 현재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는 종료된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날 중 국토부 전체 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체 회의에서도 의결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항철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와 관련해서 항공·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

하에 있다는 ‘태생적 한계’에 제대로 된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청회 연기를 촉구하는 ‘식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기발표까지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이 같은 유가족의 처절했던 투쟁 덕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청회 취소와 개정안 소위원회 통과라는 낭보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잘못된 참사의 매듭을 다시 풀어내는 첫날”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한 핵심 과제가 수용된 결과”라며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Today

기획-‘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5년’ 6면

한국학 관련 자료 8년간 10만점 모아 15면

최형우 보내고 양현종과 ‘2+1년 45억’ 16면

전액 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 훈련내용 :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디지털 영상편집	이미지 편집, 제작 및 영상 편집 기초교육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전형방법 : 입학선발평가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중식 제공,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 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